

광주시, 장년층 일자리 사업 ‘빛고을50+’ 본격화

전문성 등 9개 분야 280명 참여
올해 예산 9억8000만원 투입
재취업·사회봉사 연계 사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광주광역시시가 지역 장년층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빛고을 50+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빛고을 50+일자리’ 참여자와 파견기관, 장년세대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행사는 50+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 안내와 참여자 선서, 특별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빛고을 50+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중장년 50+ 정책’의 하나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장년층이 지역사회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생애 재설계형 일자리다. 이를 통해 재취업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강기정 광주시장, 유영용 빛고을 50+센터장,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이 16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빛고을 50+일자리 사업 발대식에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 활동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사업규모를 확대해 일자리 참여인원을 250명에서 280명

으로 늘리고, 신규 사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일자리의 다양성을 높였다. 올해 사업

에는 총 9개 분야에 9억8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성아 기자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평동산단 내 2곳서 10주간 실시
내달 평동비즈니스센터에도 개설

광주광역시시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평동산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교육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정보가 부족해 학습을 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평동산단 17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현장방문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했다.

그 결과 현재 평동산단 내 사업장 2곳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평동산단 내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예정

이다. 교육시간은 일요일 오후 1~3시까지다.

교육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또는 생활한국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산업현장 근무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한다.

토픽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고용허가제로 취업 중인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을 동반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의 경우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토픽 2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광주시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평동산단 내 사업장에 대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10인 이상이 수강을 희망하고 교육실을 보유한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062-714-2732)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향후 사업 성과와 제반 여건을 검토해 다른 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전남농업기술원, 유자씨 활용 ‘오일세럼’ 출시

특허 출원·기술이전 성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지역 특화작목인 유자의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활용해 ㈜하이솔과 유자씨 오일을 첨가한 ‘오일세럼’을 출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유자 가공공장에서 유자차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년 3000톤의 유자씨가 산업폐기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 비용만도 연간 30억 원에 달한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버려지는 유자씨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2023년 시제품을 제작하고, 2024년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용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이전받은 하이솔은 올해 4월 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자사 브랜드 ‘립포



디아’ 누리집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향후 스토어팜, 주요 오픈마켓 입점 등 다양한 국내 유통 채널을 통한 홍보·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마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제품은 소비자 체험단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여러 차례 조성물 변경과 테스트를 거쳐 완성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도·시군·농협 30일까지 집중가입
총 11개 품목…보험료 90% 지원

전라남도는 올 여름철 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 가입 기간 여름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주요 품목인 11종을 대상으로 가입 목표율 80% 달성을 위해 농협과 함께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가입 품목은 옥수수, 벼, 가루쌀, 대파, 인

삼, 고랭지 배추·무, 참다래, 콩, 팥, 녹두다.

올해부터 벼(영광), 콩, 옥수수 품목은 자연재해, 화재, 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도 보상은 농업 수입 안정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농협 담당자 회의를 통해 기관별 역할을 나누고, 품목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보험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시군과 읍면동에서는 마을 홍보방송, 가입 안내 문자 발송, 이장회의 등 각종 행사 시 재해보험 가입 중점 홍보 등에 나서

고, 지역농협에서는 지난해 가입자 중 올해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 가능한 품목은 총 11개 품목으로 △벼 20일까지 △대파 20일까지 △가루쌀 7월20일까지 △참다래 7월4일까지 △콩 7월18일까지 △고랭지배추·무 7월25일까지 △팥 8월17일까지 △인삼 10월31일까지다. 또한 무안과 신안에서는 올해 시범 추진하는 녹두는 8월8일까지 가입할 수 있고 옥수수는 지난 13일 완료됐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원예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8월까지 3단계 감시체계 운영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어 2단계인 7~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으로, 오염물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3단계로는 장마가 끝나는 8월 중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공정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복구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연중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5월에는 소규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인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해 자발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정성아 기자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음용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귀농·귀촌 상수도 미보급지역 대상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금까지 총 604 가구에 혜택을 제공했고, 약 1억6200만

원 상당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사 대상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귀농·귀촌인 가구다. 검사 항목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46개 전 항목으로, 지금까지 검사 결과에서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등이 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하수 관정 주변 청소 및 소독, 자재 세척 등 맞춤형 수질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또는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 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 시료를 채수하고, 이를 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는 시·군 담당 부서에 통보되며,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질 관리 방안이 안내된다.

오지현 기자